

## 동·서양 상복에 표현된 색채상징 연구 - 흰색과 검정색을 중심으로 -

김 주 희 · 채 금 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sup>†</sup>

### 요 약

상복은 상중에 있는 상제나 복인이 입는 예복으로 엄숙하게 갖추어 입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죽은 사람을 예로써 보내기 위한 산 사람들의 예의 표현방법이다. 상복이나 수의(壽衣)는 민족이나 문화, 지역에 따라 표현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복 색상의 경우 유럽을 비롯한 서구 문화권은 검은색, 아시아 중심의 동양 문화권은 흰색으로 양분화 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복의 모습을 당연시하게 볼 수 있으나, 생과 사에 대한 각 문화권의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색채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흰색과 검정색은 인간의 생과 사를 표현하는 원초적인 색상으로 동양의 상복에서는 흰색으로, 서양의 상복에서는 검정색으로 나타난다. 동양과 서양의 사상체계와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동양은 삶과 죽음, 영혼과 육체를 하나의 동일선상에서 보는 일원론적 관점으로 우주적 생명과 연관되는 순환적 양태를 보인다. 반면 서양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관점으로 죽음 이후를 신앙의 문제로 여기거나,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는 순간에 맞추어 사고한다. 동·서양의 사상체계와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면 동양 상복에서의 흰색은 물질 이상의 것, 순수함과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을 대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죽음을 생의 끝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의 시작으로 여겨 태양빛과 같은 흰색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서양 상복에서의 검은색은 죽음 이후의 정의할 수 없는 미지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극한 슬픔과 부정성을 표출한다. 또한 16세기 이후 변화한 검은색 상복은 살아 있는 자, 남아 있는 자를 위한 색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상복, 흰색, 검정색, 죽음, 생과 사

\*교신저자: 채금석, cks9312@sookmyung.ac.kr

접수일: 2016년 7월 12일, 수정논문접수일: 2016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29일

## I. 서론

전통사회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전통적 가치관은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징성에 대한 해석은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갈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상징은 문자가 있기 전 원시시대의 샤머니즘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기에, 색의 상징성은 원시적 생(生)과 사(死)의 개념은 물론 역사적 스토리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장례는 인생의 마지막에 치러지는 통과의례이다. 통과의례는 프랑스의 인류학자 아놀드 반즈네프(Arnold Van Gennep)가 처음 사용한 학술 용어로 어떤 개인이 새로운 지위, 신분, 상태를 통과할 때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의례를 총칭한다. 장례 의례는 민족에 따라 크게 다르며 동일 민족 사이에서도 망자의 성, 연령,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급작스럽고 두려운 변화로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집단의식을 통해 초자연적 힘과 화해를 추구함으로써 그러한 공포의 감정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점을 상기해 본다면, 장례는 세계 각 종교들이 실패해 왔던 세계관, 가치관, 윤리관, 인간관 등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s, 2006).

상복(喪服)이란 상중(喪中)에 있는 상제나 복인(服人)이 입는 예복이다. 상복을 엄숙하게 갖추어 입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죽은 사람을 예를 갖추어 보내기 위한 산 사람들의 예의 표현방법이다(상복 [Mourning clothes], n.d.). 상복이나 수의(壽衣)는 민족이나 문화, 지역에 따라 표현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복 색상의 경우 유럽을 비롯한 서구 문화권은 검은색, 아시아 중심의 동양 문화권은 흰색으로 양분화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복의 모습을 당연시하게 볼

수 있으나, 생과 사에 대한 각 문화권의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색채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서 및 동·서양의 생과 사, 색채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토대로 하여 문화적 원형과 색의 상징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동양과 서양의 생과 사에 대한 사상을 통해 검은색과 흰색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로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문화권과 한국, 일본, 중국의 동양 문화권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생과 사를 표현하는 상복만큼 색의 상징적 의미가 강한 것도 없다고 사료되기에 동양과 서양 문화적 측면에서 상복의 색상을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상조 문화의 변화로 전통적인 흰색 상복이 검은색 상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한국의 흰색 상복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동양과 서양에 나타난 상복 색상의 사례를 살펴보고, 동·서양의 사상적 체계와 생사의 의미를 살펴 동·서양 상복에 나타난 흰색과 검은색의 상징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문화적 원형과 색채상징

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오랜 역사적 경험이 누적되어 형성된 집단적 무의식을 ‘원형(archetype)’이라고 하였다(Abt, 2005/2008). 원형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것에서부터 특정지역이나 문화권에서만 공유되는 것, 더 작게는 한 개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매우 개인적인 원형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가 있다. 이 원형들은 인간 무의식의 심연 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과 사유를 조종한다고 할 수 있으며, 원형을 이해하는 일은



Figure 1. Woman in mourning.  
From Varichon. (2005/2012). p. 13.



Figure 2. Woman in Papua New Guinea.  
From Varichon. (2005/2012). p. 11.

우리 삶 속에서 사소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무의식의 원형은 전형적인 그림이나 상징의 형태를 통해서만 나타난다. 상징은 어떤 주어진 순간에 작동하는 원형과 환경의 복합적 산물이다. 상징은 사람들의 집단성을 토대로 생겨나 집단의 문화나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난다. 따라서 상징은 일시적이고 국부적이고 개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물려받지 않는다. 물려받는 것은 무의식의 조직책, 원형으로 원형적 이미지나 상징은 원형 자체의 정렬 효과로 볼 수 있다(Abt, 2005/2008).

색채상징이란 하나의 색을 보았을 때 특정한 형상이나 뜻이 상징되어 느껴지는 것으로 여기서 상징이란 사물을 전달하는 매개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심벌이나 기호로 볼 수 있다. 색의 상징은 색채의 연상 작용이 관습적인 성향을 띠게 되면서 정서적 반응과 사회적인 규범을 포함한다(Park, 2007). 세계 각지의 문화나 문명의 역사에서 색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색은 관념적인 우주와 세계를 상징하기도 한다. 태양의 운행으로 나뉜 동서남북의 네 방향은 민족이나 종교마다 다양한 색으로 채색되기도 하며, 내세, 천국, 극락, 지옥, 저승도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특색 있는 색으로 그려진다(The 21st Study, 2003/2004). 인간

의 문화와 사유방식을 지배하는 어떤 원형의 존재가 색채를 통해서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색채는 빛과 어둠사이, 밝음과 어둠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리스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색은 빛과 어둠의 혼합에서 만들어 진다고 하였다(Suenaga, 1997/2006). 이러한 흰색과 검은색은 빛과 어둠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색으로 오랜 기간 문화적 정서와 무의식이 이어오고 있다. 웨딩드레스의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지만 한국에서는 상복에도 흰색이 선호된다. 고대 이집트 신관 <Figure 1>은 가장 깨끗한 아마치만을 몸에 걸칠 수 있었고, 파푸아뉴기니의 젊은 여성 <Figure 2>는 몸을 반으로 나눠 각각 백악과 흑탄을 칠해 나란히 대조되는 색은 우주의 구조를 나타냈다(Varichon, 2005/2012). 이와 같이 흰색과 검은색은 문화의 원형을 통해 표현되는 상징적인 색이라 할 수 있다.

## 2. 동·서양에 나타나는 상복색상의 사례

### 1) 동양의 상복

상례(喪禮)란 죽음을 다루는 의례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나 보이는 민속 현상으로 그 민족의 사생관과 조령관(祖靈觀)을 나타

내는 의례이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5). 이러한 상례는 문화에 따라 다양한 특색을 보이며 나타나는데, 다양한 문화의 정신관과 함께 문화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다양한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내면의 심리를 표현해왔다. 색은 관념적인 우주와 세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내세, 천국, 극락, 지옥, 저승 등은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며 각각 특징 있는 색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색채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문화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5).

서양에서 상복의 색상, 즉 애도의 색상이 검은 색인 반면 한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은 동양의 전통적인 상복색은 흰색이었다. 우선 한국의 상장례는 전통적 무속 의례나 불교 의례로 이루어지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주자가례 예법이 덧붙여지게 된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부여에서는 초상시에 남녀 모두 순백의 옷을 착용하였으며, 부인들은 삼베로 만든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반지와 패물을 일체 하지 않았다(其居喪男女皆純白 婦人者布面衣)고 하여 흰색이 고대부터 상복 색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Na, 2008). 고대 한국의 상복에 대한 기록은 「三國志」 동이전 고려조와 「隋書」 백제조 신라조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상복은 예법으로 정해지게 된다(Figure 3). 또한 흰색(소색)은 고대 기록에서 상복 외에 의복의 색상인 백의(白衣)로도 선호되었다.

중국의 상복색을 살펴보면 금나라와 청나라 초기의 장례습속은 만주지방 여진족의 옛 습속인 화장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다음날 바로 들에서 화장했다. 그때 자손과 친족들이 함께 모여 소와 말을 잡아서 먹고 곡하면서 2-3일 동안 흰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Jeon, 2011, p. 62). 청나라 초기까지만 해도 여진인의 전통적 장례습속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상복으로 널리 흰 옷을 입은 점이 한국과 같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장족(壯族)의 상주들은 상복을 입는데, 상복의 형식은 지역에 따라 일정치 않았으나, 붉은 색은 피하고 흰색의 천으로 상복을 지어 입었다. 일반적으로 남자 상주는 흰색의 두루마기를 입었고, 여자 상주는 흰색의 저고리를 입었다. 그리고 남녀 상주 모두 머리에 흰색 수건을 동이고 허리에는 흰색 띠를 매었으며, 짚신을 신었다(Jeon, 2011).

일본에서는 장례식을 ‘백사(白事)’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상복색이 흰색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일본인들은 장례식을 거행할 때 흰색 혹은 백목(白木)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이 흰색을 선호했던 이유는 하얀 것이 밝고 깨끗하고, 신성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상복으로 남자는 소박한 마로 만들어진 하카마(袴), 여성은 시로무쿠(白無垢)가 일반적이었다(The 21st Study, 2003/2004).

최근에 이르러 동양의 상복은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인데, 이는 19세기 이후 서구 문물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84년 개화기에 사회와 정치의 커다란 변화로 인해 일상복이 한복에서 양복으로 바뀌었다(Lee et al., 2016). 일본이 서양의 상복 문화를 수용한 것은 메이지 30년 1월 천황의 모후였던 영조 황태후의 장례식 때부터로 당시 일본 정부는 유럽식 상복을 입도록 전국에 공시했다. 그리고 이 장례식 이후 검은색 양장과 일본식 검은 옷 몬츠키(紋付)는 나라가 인정하는 정식 상복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검은색 상복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934년 일본 식민 정부는 상례 간소화 정책을 반포하면서 상장(喪章)으로서 검은 리본을 달게 했으며, 이후 서서히 검은색 옷이 상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가정의례 준칙이 시행된 오늘날에는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 또는 검은색, 양복은 검은색을 입고, 왼쪽 가슴에는 상장이나 흰 꽃을 단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Figure 3. Traditional image of mourning.  
From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5). p. 94.

2005). 중국도 서양 의복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상복까지 수용하였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정부 요인이 사망했을 때 주요 장례 행사에서 참배자들 대부분이 검은 옷에 검은 넥타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s, 2006).

최근 한국은 여자 상복의 형태를 치마저고리형과 개량형, 양장형 상복으로 구분하고 있으나(Lee & Kang, 2016), 양장형의 형태적 변화 외에 전통적인 치마저고리형의 색상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Figure 4).

## 2) 서양의 상복

서양에서 검은색과 가장 오래 결합된 것은 죽음, 슬픔, 죽음의 공포의 의미로 조문객들이 입는 색으로 검은색이 쓰인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다. 고대 로마의 조문객들은 검은색 토가를 입었고 그리스의 장례식 참가자들도 검은색을 입었다. 피부가 하얀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을 석탄 등으로 검게 칠했다고도 한다. 가까운 친족이 죽으면 수일에서 1개월, 지역에 따라서는 1년 동안 검은 옷을 입고 지내는 풍습은 그 당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장례식에 참석한 친인척 모두가 ‘루투 니에 두(Luttu nied du)’라고 불리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검은색 손수건 흑



Figure 4. Changing look of the mourning.  
From Lee and Kang. (2016). p. 186.

은 술을 들렀다(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s, 2006). 검은색은 풍부한 색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로는 어둠과 밤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고대로부터의 자연적인 상상에 따르며, 밤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Harvey, 1995/2008).

14세기 검은색에 대한 유럽인의 호감은 검은 옷이 15세기를 지배하고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 어두운 색의 옷이 겸손의 표현으로 인식되게 한다. 그 결과, 유럽에는 귀족의 장엄한 검정과 종교의 도덕적인 검정이 공존하게 되는데, 16세기를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엄격하게 치러지던 장례식에서는 반드시 검은 상복을 입어야 했다(Varichon, 2005/2012). Harvey(1995/2008)는 15세기는 유럽 역사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로 슬픔과 동요, 죽음은 검은색으로 강조되었으며, 정교한 죽음의 의식이 부강한 나라에 나타남으로써 검은색은 특권과 권력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중세 시대를 기점으로 검은색은 양면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Figure 5>와 같이 기독교 문화에서 검은색은 밤의 어둠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을 상징하게 된다. <Figure 6>의 검은 옷은 상복인 동시에 성직자의 옷으로 18세기에는 검은 옷이 성직자의 의무적인 복장이 된다(Varichon, 2005/2012). 프랑스 왕비였던 카트린 드



Figure 5. Gustave Courbet's Burial at Ornans.  
From 오르낭의 장례식 [Burial at Ornans]. (n.d.).  
<http://www.doopedia.co.kr>



Figure 6. Catherine de Médicis.  
From Catherine de Médicis jeune  
(1519-1589). (n.d.).  
<http://www.photo.rmn.fr>

메디시스(Catherine de Médicis)는 남편이 죽은 후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 슬픔으로 죽을 때까지 검은 상복을 입었다.

오늘날에도 지중해 연안의 카톨릭 국가에서는 상복으로 어두운 색 옷을 입어야 하는데, 장례식에서 관을 중심으로 가상의 동심원을 그렸을 때 가장 중심의 원에는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이, 두 번째 원에는 군청색이나 갈색 옷을 입은 이들이, 가장 외곽의 원에는 굳이 상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 엷은 색 옷을 입게 된다(Varichon, 2005/2012). 현재 서양의 경우 상복에 대한 형태적인 측면은 변화하였으나, 색상에 있어 검은색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동·서양 사상적 체계와 생과 사의 의미

한 사회의 생사관은 사회의 문화와 가치체계를 이해하는 척도가 되는데, 동양과 서양의 사상과 철학을 통해 각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살펴본다.

### 1. 동양 사상과 생사의 의미

동양은 유교, 불교, 도교를 기본으로 하나, 그 근본에는 기(氣)와 음양오행(陰陽五行)사상이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양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이라는 두 종류의 기에 의해 만들어진다. 음양의 기로 구성된 나무(木), 불(火), 흙(土), 금(金), 물(水)의 5원소가 상호작용하며, 이 5원소로 만물의 움직임을 설명하게 된다. 5원소는 방위나 색상, 계절, 인체의 중요한 내장기관인 오장(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는 우주 삼라만상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자 또는 실체이다. 기는 단순히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자일 뿐만 아니라,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인자도 된다. 그래서 기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그리고 시공간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실체라 할 수 있다(Chae, 2002).

유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는 우주만물을 구성하는 근본이자 에너지인 기, 그리고 음양에서 출발한다. 생은 기의 모임이고, 사는 기의 흩어짐이다(Yum, 2010).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기에 그런 의미에서 생과 사는 기의 서로 다른 양태일 뿐이라 할 수 있다(Yum, 2010). 유교는 한 마디로 천인합일(天人合一)을 통한 철학적 이





Figure 7. Goguryeo ancient tomb mural.  
From Chae. (2012). p. 24.

론을 통해 생과 사는 자연적인 과정에 불과하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주의 큰 변화과정으로 죽음을 삶을 보배로 아끼고 그것이 갑자기 끊어짐을 가련히 여기는 것에 대한 표현일 뿐 편안함으로 받아들인다.

장자(莊子)는 “삶은 죽음과 동류이고, 죽음은 삶의 시작이나, 누가 그 근본을 알겠는가? 인간의 삶(생명)이란 기가 응취한 것이니 기가 응취되면 삶이 되고 흠어지면 죽음이다(生也死之徒, 死也生之始, 孰知其紀.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 若死生爲徒, 吾又何患. 故萬物一也. 是其所美者爲神奇, 其所惡者爲臭腐. 臭腐復化爲神奇, 神奇復化爲臭腐, 故曰 通天下氣耳)”라 하였다(Jung, 2008, p. 65). 이처럼 도가는 개별 생명체를 자연의 기의 응집으로 여기며, 따라서 죽음을 응집된 기가 흠비백산으로 흠어져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자연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주 만물의 당연한 이치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불교는 개체가 죽을 때 오온(五蘊)은 흠어져 멀어져도 그 개체가 지은 업의 힘이 업력으로 남아 그 다음의 오온을 형성하므로 죽음을 단순한 끝이라고 보지 않는다(Park et al., 2011). 이를 윤회라 하는데, 생사를 반복함으로 삶과 죽음의 고통을 반복하며, 윤회 과정 속에서 수행을 통해 무명을 없애고 집착을 버리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해

탈, 즉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때의 열반을 죽음의 종식으로 보기 보다는 깨달음을 통해 본래의 마음 자체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불생불멸의 중생 속에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의 의미처럼 삶이 죽음의 바탕 위에 있으며, 곧 죽음이 삶의 바탕이라는 의미로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설명한다.

한국의 토착 세계관은 무속(巫俗)이다. 무속에 관한 논란이 자못 많지만 무속적 세계관이 한국인을 지배하는 사고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무속에서 영혼은 사후에 저승으로 건너가서 영생하거나 다시금 현세로 환생한다는 믿음이 있다. 고대 고구려 풍습에는 육신은 죽었지만 혼은 살아남아 전생의 삶이 부럽지 않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있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5). 이것을 계세관(戒世觀)이라 하는데, 고구려 고분벽화 <Figure 7>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Na, 2008). 또한 수서 고구려 전에 처는 상을 당했을 때는 곡을 하고 울지만, 장사를 지낼 때는 북을 치고 풍악을 울리며 장례를 치른다(初終哭泣, 葬則鼓舞作樂以送之)라는 기록이 있다(Na, 2008).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은 슬프지만, 죽음은 곧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기에 풍악을 울린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의 「永樂大典」에서도 장족 및 그 선조들은 상사가 있으면 서로 모여서

정을 치고 복을 두드리며 노래 부르고, 마음껏 술을 마시며 즐거이 춤을 춘다(以遼樂飲酒食肉爲)고 하였는데, 이 역시 죽음을 생의 마지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Jeon, 2011).

동양에서는 우주, 즉 자연과 인간의 생사 문제가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생명과 연관되는 것으로 순환적 양태라 할 수 있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5). 다시 말해 죽음과 삶, 영혼과 육신은 동일선상의 문제인 것이다.

## 2. 서양 사상과 생사의 의미

서양의 사상은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이분법적 사고관과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이후의 이른바 근대적 과학관이 이루고 있다. 서양사회를 지배했던 정통 기독교는 히브리 사상에 희망 사상이 더해진 결과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을 철저히 이원론적으로 분리한다. 죽음은 육망 덩어리인 물질적 몸의 감옥으로부터 비물질적인 영혼이 해방되는 순간이며, 그렇게 몸을 벗어난 영혼은 우주의 창조자인 신 앞으로 나아가 지난 생에 관해 심판받고 천당이나 지옥으로 보내지게 된다. 죽음은 곧 하늘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이다.

서양철학은 16세기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 물질 이원론에 입각한 유물론적 근대 과학관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대 피타고라스(Pythagoras)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분리된다는 이원론으로 죽음 이후의 영혼은 신과 가까우며 영혼 윤회설과 영혼 불멸설을 통해 육체를 벗어나 정화의 참회의 길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플라톤 역시 영혼이 불멸하고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원론으로 죽음을 통해 영혼의 영원성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찾게 된다고 하였다. 에

피쿠로스(Epikuros)는 죽음은 경악과 공포의 대상으로 최종적인 상태이며, 의식의 소멸을 뜻한다고 하였으며,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육신의 삶이 허락되거나 영원한 죽음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세 이후의 서양 철학은 죽음이나 사후의 문제를 종교나 신앙의 문제로 간주하며 철학적 논의에서 배제한다. 서양철학은 기독교 신학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근세 이후로 서양 과학과 마찬가지로 인간 영혼을 그 자체 자연 질서에 의해 규정되는 필연성과 유한성의 존재로 이해한다. 죽음이나 사후의 존재 자체는 인간 인식의 한계 너머의 문제로서 종교나 신앙의 영역으로 치워 놓고, 오직 죽음에 대한 태도만을 문제 삼는다고 볼 수 있다(Park et al., 2011). 데카르트는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을 철저히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며, 죽음은 육체라고 부르는 기계의 종말로 정신과 죽음은 별개의 것으로 보았다.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와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인간은 자연 질서에 의해 규정되며 언젠가 죽어야 하는 ‘필연성과 유한성’의 존재라고 설명한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러 유한성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신에게 내맡길 때 무한성과 영원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니체는 공통과 죽음을 끌어안는 강한 정신이 삶을 보다 향기롭게 한다고 설명한다(Park et al., 2011). 이에 반해 하이데거는 죽음을 통해 삶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을 드러내야 비로소 삶을 일회적이고 소중한 것으로 자각한다고 설명한다(Park et al., 2011). 다시 말해 가능성과 무한성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생사의 대립과 모순을 종합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Park et al., 2011).

서양 역시 영혼과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 보다 철저한 이원론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혼이 육



Table 1. Life and death, the difference between east and west.

East	W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tinuity of life and death</li> <li>- Unity of soul and body, Monism</li> <li>- Identify in a life after death, Gyesegewan</li> <li>- Dancing and singing in ancient death</li> <li>- Positiv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focus at the time of death</li> <li>- Separate the body and soul, Dualism</li> <li>- Sacred of gods after death</li> <li>- How to overcome death</li> <li>- Negative</li> </ul>

체를 떠나는 순간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하게 되는 데, 죽음 이후를 신앙의 문제로 여기거나, 인간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와 극복하는 순간에 맞추어 사고함을 알 수 있다.

동·서양 사상에 따른 생과 사의 의미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Table 1).

#### IV. 동·서양 상복 색상의 의미

##### 1. 동양 상복에 나타난 흰색의 상징적 의미

###### 1) 죽음을 대하는 긍정적 자세

인류학자 빅토르 터너(Victor Turner)는 백색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심볼이라고 하였다(Park et al., 2011). 송고, 순결, 단순, 순수, 깨끗함을 연상시키는 흰색은 성직자의 승복이나 신부의 의복이 흰색이라는 점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흰색은 현대에서도 사물의 근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색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흰색은 일반적으로 의례와 제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나타낸다. 고대 이집트인 <Figure 8>의 경우, 흰색은 생명과 부활을 그리고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예가 많은데, 태곳적부터 태양광선을 만물의 원천이라 여겨 흰색을 생명력 그 자체로 보았다. 그래서 태양신과 관계있는 신, 부활을 관장하는 신의 옷은 흰색이었으며, 성수도 흰색, 또 부활을 기원하면서 만든 미라에도 흰색 붕대를 둘렀다(Harvey, 1995/2008).

동양의 일본에서는 신도에서 죄를 씻는 절차를 상징하는 색으로서 흰색을 사용하는 독특한 신앙이 있다. 또한 백목(白木)으로 만들어진 신전이나, 백장속(白裝束), 무도(武道)에서 있어 흰색을 사용하는데, 도복이 흰색인 것은 정신 집중이나 명상 효과 등 심리적인 정화작용을 나타내는 색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채색이 사라진 흰색은 선(禪)에 있어서 공(空)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잡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추방하는 긴장완화의 색이라고 할 수 있다(Suenaga, 1997/2006). 또한 한국에서는 백자 <Figure 9>와 한국화에서의 여백은 깨끗함과 순박함을, 그리고 전통적인 춤 <Figure 10>에서 보여 지는 흰색 옷을 통해 내면과 정신을 추구하는 실천적 몸짓 언어를 표현하고 있다. 한국 춤은 구도자와 같이 명상과 깨달음의 경지를 향해 움직이고 마음의 채색을 흰 빛으로 비워둔다(Chae & Kwon, 2003). 이것은 곧 흰색이 물질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흰색을 순수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색으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은 죽음을 육체적으로 생명의 끝이라고 인식한 반면, 동양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현재의 삶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연결 세계로 보았다.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 생각하지 않고 삶과 죽음을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는 동양인의 시각은 고대에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춤과 노래로 승화하기도 하였다(Kim, 2015). 죽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동양은 오히려 정의한 문화 원형과 같이 집단적 무의식이 흰색이라는 상징적 색채로 나타났



Figure 8. White in Egypt.  
From Fleming. (1997/2009). p. 100.



Figure 9. White porcelain.  
From Moon. (2012). p. 321.



Figure 10. Salpurichum.  
From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살পুর이 공연 [Perform Salpuri mark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2013).  
<http://www.newsis.com>

고 볼 수 있다.

## 2)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서의 빛

동양의 음양오행사상에는 청, 적, 황, 백, 흑의 다섯 가지의 오방색이 있다. 동양의 기본사상은 음양과 오행의 원리에서 음과 양은 각각 어둠과 밝음, 여성성과 남성성을 의미하는데 음양의 상반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작용이 우주만물의 발생, 변화 그리고 소멸을 주관한다고 보았다(Yean, 2015). 여기에서 흰색은 금(金)을 뜻하며 서쪽, 가을, 백호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흰색이 금을 의미하는 이유는 금속의 반짝임을 흰색으로 여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흰색과 금속의 반짝임은 태양의 빛이 비추어지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와 같이 태양을 만물의 생명의 원천으로 보고 생명과 부활의 의미로서 흰색을 인식한 것과 유사하다.

고대의 신화 가운데 흰색은 신의적인 색으로 나타난다. 신화는 특히 집단 무의식을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집약적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고대 한국의 신화에서 등장하는 빛은 어둠에 대립하여 인간 세계의 이해와 자기 이해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며 고대인에게 있어 백색 즉 흰색의 이미지로 상징화 된다(The published a compendium of aesthetics,

2008). 또한 「三國志」에 “부여인들이 흰빛을 숭상하였다(在國衣尙白 白布大袂袍袴)”는 기록이 있다(Na, 2008). 이는 고대 한국인들이 스스로 하늘의 자손-천손으로 여겨 하늘을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다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서 하늘을 상징하는 것은 태양이고 태양빛을 흰빛으로 여긴 고대의 관념이다.

동양의 유교나 도교는 우주 만물의 근원을 기로 보고 음양에서 출발한 기의 응집으로 생명이 태어나고 죽음을 통해 응집된 기가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적인 양태로 보았다. 이러한 순환적인 기의 양태는 생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으로 바라보게 된다(Chae, 2002). 불교 또한 해탈을 통해 열반의 경지에 이룸으로써 죽음을 단순한 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을 대면하는 자는 죽음을 생의 끝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의 시작으로 여겨 태양빛과 같은 흰색의 상복을 입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서양 상복에 나타난 검은색의 상징적 의미

### 1) 생명의 다함에서 오는 슬픔

검은색은 흰색과 함께 색채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던 원시시대부터 인식되어진 색상으로 일반적으로 무거움, 두려움, 암흑, 공포, 죽음, 권위 등을 상징하는 색이라 할 수 있다(Shin & Choi, 2014). 검은색은 생리학적으로 빛의 자극이 없는 상태를 뜻하나, 심리학적인 면에서는 빛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를 하나의 적극적인 자극으로 감지하는 것이기도 하다(Biren, 1993/2013). 검은색은 서양에서 로마시대 이래 상복이나 성직자의 의복색으로 사용되었다. 죽은 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데 대한 태고의 두려움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그들의 세계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검은 옷을 입게 만들었다고 한다(Koo, 2015). 죽음과 유사한 색을 입어 남아있는 자가 죽음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죽음에 대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양에서 근세 이전(14-16C)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으로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한다.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나,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슬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은 정의할 수 없는 미지의 세상으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검은색의 상복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어둠을 적극적으로 감지한 것으로 검은 상복을 입는다는 것은 좀 더 간절한 애도의 표현이자 여전히 살아있는 자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다(Harvey, 1995/2008). 다시 말해, 검은 상복은 죽음에 대한 극한 슬픔과 부정성을 표현하는 색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는 죽음을 생명의 끝으로 여겼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2) 살아있는 자의 특권

14세기 검은색에 대한 유럽인의 호감은 15세기를 지배하고,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 어두운 색의 옷이 겸손의 표현으로 인식되게 한다. 그 결과, 유럽에는 귀족의 장엄한 검정과 종교의 도덕적인 검정이 공존하게 되는데, 16세기를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엄격하게 치러지던 장례식에서는 반드시 검은 상복을 입어야 했다(Varichon, 2005/2012). 16세기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서양은 정신, 물질 이원론에 입각한 유물론적 근대 과학관을 정립하게 된다.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을 보다 철저히 분리하며 죽음이나 사후의 문제는 종교나 신앙의 문제로 간주하게 된다. 인간은 언젠가 죽어야 하는 필연성과 유한성을 지닌 존재이며, 살아남은 자는 죽은 자를 보낸 후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Harvey(1995/2008)는 남성복의 검은색에 권력이 부여되었으며, 여성은 슬픔과 참회의 표현으로 검은색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한다. 중세시대 유행한 검은색은 상중 애도의 표현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검은색, 무채, 무광의 색, 슬픔, 상실, 굴욕, 죄책감, 수치의 색이 그들이 지닌 것 즉, 지위, 돈, 전문 지식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슬픔에서 애정이 사라지면 애도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가 되어버린다. 이때 검은 옷은 슬픔의 상징에서 슬픔이 요구하는 특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변하며, 여기에서 다시 더 많은 특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변해간다(Harvey, 1995/2008). 검은색이 죽음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나, 검은색 상복에 표현된 슬픔과 상실은 권력과 과시적 측면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은 자를 마주하는 검은색 상복은 애도의 표현이자 동시에 살아있는 자의 삶을 일회적이고 소중한 것으로 자각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14세기에 시작된 검은색은 19세기에 새로운 붐을 일으킨다. 검은색은 부르주아 계급의 우아함과 무정부주의자의 반란을 동시에 드러내는 역설적인 색이 되었으며, 오늘날 서양의 저녁파티에서는 검은 턱시도와 샤넬풍의 검은 원피스가 기본 의상이 되었다(Varichon, 2005/2012). 최근에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입게 된 검은색이 다양한 방식과 하이패션으로 나타나 검은색이 궁극의 패션과

Table 2. Color expressed in eastern and western mourning clothes.

White mourning clothes of eastern	Black mourning clothes of western
-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death - The beginning of another life like sunlight	- Sorrow and negativity after the death - The color for the living

같이 여겨지기도 한다. 서양에서 죽음과 슬픔을 상징하던 검은색이 권력과 과시의 의미가 동반되고, 세련미를 상징하는 하이패션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을 때, 검은색은 죽음을 생명의 끝으로 인식하고 살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를 위한 욕망의 색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현대 서양의 장례식의 모습에서 보이는 다양하고 화려한 검은색 상복들에서 남아있는 자를 위한 욕망과 특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동·서양 사상에 따른 생과 사의 의미를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Table 2).

## V. 결론

상복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죽은 사람을 예로서 보내기 위한 산 사람들의 예의 표현방법이다. 삶과 죽음을 대하는 문화적 원형은 각 문화의 세계관, 가치관, 윤리관, 인간관 등을 포함하여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흰색과 검정색은 인간의 생과 사를 표현하는 원초적인 색상으로 동양의 상복에서는 흰색으로, 서양의 상복에서는 검정색으로 나타난다. 동양과 서양의 사상체계와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동양은 삶과 죽음, 영혼과 육체를 하나의 동일선상에서 보는 일원론적 관점으로 우주적 생명과 연관되는 순환적 양태를 보인다. 반면 서양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관점으로 죽음 이후를 신앙의 문제로 여기거나,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는 순간에 맞추어 사고한다.

이에 동양 상복에서의 흰색은 물질 이상의 것, 순수함과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을 대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죽음을 생의 끝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의 시작으로 여겨 태양빛과 같은 흰색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서양 상복에서의 검은색은 죽음 이후의 정의할 수 없는 미지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즉, 극한 슬픔과 부정성을 표출한다. 또한 16세기 이후 검은색 상복은 살아 있는 자, 남아 있는 자를 위한 색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동양의 장례식에서는 흰색보다 검은색 상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상조 문화의 발달에서 검은 한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서양의 전통적 사고관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재고해 필요가 있다. 검은색 상복이 단순함과 편리함이라는 기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단순히 서구문물의 유입이래의 변화로 보았을 때 동양의 흰색 상복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References

Abt, T. (2008). *융 심리학적 그림해석* [Introduction to pictur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C.G. Jung] (Lee, Y. K., Trans.). Seoul: Analytical Psychology Center.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Biren, F. (2013). *색채심리* [Color Psychology and Color Therapy] (Kim, H. J., Trans.). Seoul: Dongguk publisher.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Catherine de Médicis jeune (1519-1589). (n.d.). *L'Agence PhotoRMN Grand Palais*. Retrieved May 10, 2016, from <http://www.photo.rmn.fr/C.aspx?VP3=SearchResult&VBID=2CO5PCD4HBUM0&SMLS=1&RW=1440&RH=752>

- Chae, K. S. (2002). *관광사업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휴식복 개발* [Husikbok development of the Korean image for tourism]. Seoul: Jipmoondang.
- Chae, K. S. (2012).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Traditional Korean clothes and Hanstyle]. Paju: Ji-gu publishing.
- Chae, K. S., & Kwon, H. S. (2003). Study on the Korean aesthetic consciousnesses of black and white.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6(2), 111-121.
- Fleming, F. (2009). *영생에의 길* [(The)way to eternity: Egyptian myth] (Kim, S. H., Trans.). Paju: Ire.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s. (2006). *세계의 장례문화* [Burial rituals of the world]. Seou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s.
- Harvey, J. (2008). *블랙 패션의 문화사* [Men in black] (Choi, S. S., Trans.). Seoul: Simsan. (Original work published 1995)
- Jeon, Y. R. (2011). *중국 소수 민족의 장례문화* [In China, the funeral culture of minorities]. Daegu: Jungmun.
- Jung, B. S. (2008). On death in Analects and Zhuangzi. *Journal of Eastern Philosophy*, 55(-), 45-77.
- Kim, J. W. (2015). The symbolic and aesthetic meanings of "White" in Korean dancing. *동양예술*, 28(-), 5-24.
- Koo, I. H. (2015). *죽음에 관한 철학적 고찰* [A philosophical study on the death]. Paju: Hangilsa.
- Lee, C. H., & Kang, H. S. (2016). (The)Analysis and proposal for current types and designs of women's mourning dresses. *Journal of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8(1), 183-190.
- Lee, M. L., Kim, H. K., & Song, H. R. (2016). Modernized Hanbok as cultural tourist commercia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6(3), 15-27. doi:10.18652/2016.16.3.2
- Moon, E. B. (2012). *한국의 전통색* [Korea's traditional color]. Gyeonggi: Ahn graphics.
- Na, H. R. (2008).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Life and death on ancient Korean]. Gyeonggi: Jisik-Sanup.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5).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Bier funeral, equation of life and death]. Seoul: Doosandong.
- Park, C. K., An, S. D., Jung, J. Y., Whang, G. Y., Woo, H. J., Park, C. W., & Han, J. K. (2011).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Death, the end of life or new beginning?]. Seoul: Unjusa.
- Park, Y. S. (2007). *색채용어사전* [Glossary of color]. Seoul: Yelim.
- Suenaga, T. (2006). *색채심리* [Color Psychology] (Park, P. I., Trans.). Seoul: Yekyong.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Shin, E. J., & Choi, H. S. (2014). Fashion design development based on the symbolism of the color blac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4(1), 189-210.
- The Korean Society of Aesthetics. (2008). *미학의 역사* [History of aesthetic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The 21st Study. (2004). *하룻밤에 읽는 색의 문화사* [Culture of color in one night] (Jung, R. H., Trans.). Gyeonggi: Yedam.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Varichon, A. (2012). *THE COLOR* (Chae, A. I., Trans.). Seoul: EJONG.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Yean, M. H. (2015). The study on ObangGan colors of the clothing of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5(2), 165-179.
- Yun, S. Y. (2010). Views of life-death and death rites in Korean new religions: Focusing on success and renova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ew Religions*, 23(-), 1-34.
- 상복 [Mourning clothes]. (n.d.).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Retrieved May 10, 2016,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3617&cid=46671&categoryId=46671>
- 오르낭의 장례식 [Burial at Ormans]. (n.d.). *doopedia*. Retrieved May 10, 2016,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34901&cid=40942&categoryId=33054>
-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살풀이 공연 [Perform Salpuri mark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2013, August 11). *NEWSIS*. Retrieved May 10, 2016, from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30811\\_0008525242](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30811_0008525242)

# **Color Symbolism Expressed in Eastern and Western Mourning Clothes**

**- Focused on White and Black -**

**Kim, Ju Hee · Chae, Keum Seok<sup>+</sup>**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e colors expressed in mourning clothes appear different according to ethnicity, culture or region, but the colors of the mourning clothes seem to be polarized, in other words, black in the Western sphere of culture, including Europe and white in the Eastern sphere of culture centered on Asia. Judging from the system of ideology and the meaning of death in the East and West, the East has the perspective of monism that looks at life and death, soul and body at the same level, which shows a cyclic aspect related to a cosmic life. In contrast, the West has the perspective of dualism that separates soul and body, which considers a life after death a matter of faith or thinks, focusing on the moment when man overcomes the death. White in Eastern mourning means purity and cleanliness more than the material, which shows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death. In addition, regarding the death not as the end of life, but as the beginning of another life, it symbolizes white like sunlight. Black in the Western mourning clothes expresses the unknown fear that cannot be defined after the death and extreme sorrow and negativity by a terror. In addition, black mourning clothes changed since the 16th century have turned into the color for the living, the ones who are left.

Key words : mourning clothes, white, black, death, life and death